

# 『보통학교수신서』에 나타난 忠의 변용\*

김 순 전\*\* · 박 제 홍\*\*\*

---

## 目 次

---

1. 서론
  2. 忠의 의미와 굴절
  3. 다양한 인물을 통한 충군애국 교육
  4. 학교교육을 통한 충량한 황국군인 양성
  5. 결론
- 

## 1. 서론

일제는 조선 아동들에게 ‘忠’<sup>1)</sup>의 의미와 상대를 일제강점기 이후 천황에 대한 충성으로 바꿔 교육시켰다. 통감부시대 학부(學部)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사

---

\* 이 논문은 2005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5-079-AS0143)

\*\* 전남대학교 일어일문학과 교수, 일본문화연구센터 소장

\*\*\* 전남대학교 강사

1) 조남국(1995), 「한국사상의 본질」, 『한국사상과 윤리』, 형설출판사, p.50~56참조. 忠의 사전적인 의미로 忠은 中과 心의 합성어로 두 글자가 합해져서 하나(中)의 마음(心), 즉 한마음이라는 뜻이다. 한마음은 어떤 일에 몰두할 수 있는 마음, 즉 한마음을 다해서 남을 위해 실천하는 덕행을 의미한다. 중국의 송나라 때, 주자는 『논어』의 註에서 자기 자신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忠이라고(盡己之謂忠)하여 忠에 관한 설명을 간결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忠은 하위계층이 상위계층에게, 피지배계층이 지배계층에게 맹목적으로 복종하고 희생한다는 뜻과는 사뭇 다르다. 신라시대 원광(圓光)이 화랑들에게 지켜야 할 계율인 세속오계의 첫 번째가 사군이충(事君以忠), 즉 임금을 忠으로 섬기라는 뜻이다. 여기서 군(君)은 임금 개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신라의 정치를 이끌어가는 책임자를 말하며, 선정정치를 수행하는데 최대한의 힘이 되겠다는 계율의 약속이었다.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시대에는 忠이 우리나라의 고유인 기본 덕목의 하나로 정착되었다. 나라의 구심점인 임금에게 잘 봉공하는 자는 충신으로, 폭군에게 봉사하는 것은 자기이익을 위한 간신이라는 논리 속에 忠은 자기 자신의 위치에서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당위적인 의미를 지닌다.

용이 금지된 검정수신서에서 ‘충군애국’, ‘충의’, ‘애국’, ‘용감’, ‘국민의 충의’라는 제목이 암시하듯이 ‘忠’은 일제의 식민지 침략에 대한 조선민족의 저항운동과 애국운동의 키워드였다. 특히, 사립학교를 중심으로 많은 학교에서는 교육을 통해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하기 위한 구국운동으로 전개되어, 충군애국의 중요성을 강조하기에 이르렀다.<sup>2)</sup> 구국운동의 확산에 따른 통치에 위기를 느낀 일제의 학부는 교과서 검정제도라는 통제장치를 통하여 조선의 자주독립, 애국심 고취, 배일사상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교과서를 불인가교과서로 지정하여 판매 금지시켰다.

한일합방 이후 일제는, ‘제1차 조선교육령’(1911) 제2조에서 “교육은 ‘교육에 관한 칙어’의 취지에 기초하여 충량한 국민을 육성하는 것을 本義로 한다.”<sup>3)</sup>고, 식민지교육의 목적이 ‘교육칙어’<sup>4)</sup>의 취지에 따라 충량한 국민의 양성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또한 1916년 1월에 훈령으로 발표한 ‘교원의 마음가짐’(敎員の心得)의 제1조에서 “충효를 본분으로 하고 덕성을 함양해야 한다.”<sup>5)</sup>고 ‘충’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3.1운동으로 말미암아 소위 무단정치에서 문화정치로 바뀌진 후, 개정된 ‘제2차 조선교육령’(1922)에서는 ‘교육칙어’가 이미 상위의 법령으로 존재하므로, 조선인에게 반감을 살 우려가 있는 제2조를 삭제하였다. 그러나 미나미 지로(南次郎) 총독이 취임하여 개정된 ‘제3차 조선교육령’(1938)의 소학교규정 제1조에서는 “소학교는 아동신체의 건전한 발달에 유의하여 국민도덕을 함양하고,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보통의 지식·기능을 획득함으로써 충량한 황국신민을 육성하는 것에 힘쓰도록 한다.”<sup>6)</sup>라는 교육목표 아래 지, 덕, 체를 통한 충량한 황국신민의 육성에 중점을 두었다. 제1차 조선교육령의 충량한 국민에서 충량한 황국신민으로 바뀌 천황에 대한 희생정신을 강조하고 있다. 또 일제는 아동들에게 ‘황국신민서사’<sup>7)</sup>를 통해서 “우리들은

2) 홍호선(1995) 「대한제국 말기 일제의 교과서 통제 요인에 관한 연구」, 중앙대 박사논문, p.71 재인용. “대한제국은 일대 宗戚의 黨이 단결하여 국가를 형성하였다 해도 과언은 아니리라.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 군신의 관계는 서로 사귀어 친해진 점이 公式을 제외하고 친밀한 것이니 이는 忠君愛國의 정신이 근성으로부터 나온 바니라.” <윤리교과서 권4> 「황실과 신민의 관계」, 1909

3) 教育ハ教育ニ関スル勅語ノ旨趣ニ基キ忠良ナル國民ヲ育成スルコトヲ本義トス 「朝鮮教育令」 第1章 綱領

4) 메이지천황의 이름으로 1890년 국민도덕의 근원과 국민교육의 기본 이념을 명시한 칙어. 군인칙유와 같이 천황이 신민에게 하사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 내용은 충군애국주의와 가부장제를 근거로 하는 윤리관으로 기본적인 인권은 부정되고 천황에 대한 충성과 복종을 강조하고 있다.

5) 조선총독부(1918) 『朝鮮總督府施政年報 大正4年度』, 조선총독부발행, p.331.

6) 小學校ハ兒童身體ノ健全ナル發達ニ留意シテ國民道徳ヲ涵養シテ國民生活ニ必須ナル普通ノ知識ヲ得シメ以テ忠良ナル皇國臣民ヲ養成スルニカムヘキモトス 「小學校規定」 第1條(總督府令第24號)

7) 1936년 제7대 조선총독인 미나미 지로(南次郎)가 부임하여 내건 ‘조선통치 5대 지침’에는 ①国体明徴(일본의 국체를 분명히 자각하는 것) ②鮮滿一如(조선인, 만주인과 일본인은 하나) ③교학진작 ④농공병진 ⑤서정혁신이었다. 이각종(李覺鐘)은 ‘내선일체’ ‘황민화’라는 슬로건을 만들었다. 또 총독부 학부국 촉탁인 김대우(金大羽)와 협력하여 ‘황국신민서사’를 만들었다. 이 서사를 보급하기

마음을 합하여 천황폐하에게 충의를 다 합시다.”라고 천황에게 충성할 것을 강요하였다. 일제는 통감부 이후 충군애국 교육을 겉으로 강하게 표출하지 않았으나 만주사변과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천황에게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충성해야함을 아동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다.

선행연구로 이리에 요코(入江曜子)의 『日本が「神の国」だった時代』(2001)는 초등수신, 초등국어, 초등음악 등 교과서의 구체적인 내용분석으로, 식민지교육의 실태가 자세히 서술되어 있지만, V기에 한정되었다는 점이 아쉬운 점이다. 야마무로 켄토쿠(山室建徳)의 「군신론」(1999)은 매스미디어가 전투에서 전사한 군인들을 군신으로 미화하여 만들어지는 과정을 비판적인 관점에서 기술하고 있다. 미야다 세츠코(宮田節子)의 『朝鮮民衆と「皇民化」政策』(1985)은 일제강점기 말 조선교육의 목표는 ‘징병제’실시(1943)를 위해 내선일체를 가장한 황국신민화 교육으로 파악했다. 김기홍의 「일제하 전시총동원체제기(1938~45) ‘황민화’ 교육연구」(2000)는 전시기 학교교육의 교과과정과 교육정책 위주로 기술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선에 전통적으로 내려온 ‘충’의 개념을 일제가 어떻게 천황에 대한 ‘충성’으로 변용시켜 교육시켰는가를 일제강점기에 편찬한 『보통학교수신서』<sup>8)</sup>의 기술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충군애국’을 상징한 대표적인 인물들을 일제가 학교교육을 통해 어떻게 가르쳤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일본의 『심상소학수신서』에 등장하는 ‘충’과 관계된 인물들의 빈도와 교과서의 구성과 기술내용의 차이와 의도를 비교 고찰해 보고자 한다. 또 보통학교에서 ‘충군애국’의 교육을 받은 조선아동들이 ‘육군특별지원병’제도를 통해 천황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충량한 황국 군인으로 되어가는 데 수신서가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를 살펴 보고자한다.

## 2. 충의 의미와 굴절

일제가 조선아동을 충량한 황국신민으로 육성함을 교육의 목표로 삼았을 때 과연 ‘충량’이란 어떤 의미일까? 니시 아마네(西周)는 “일본 인민의 성질은 충

위해서 아동용으로 100만부, 성인용으로 20만부를 인쇄하여 배포하였다.

8) 본 텍스트의 기본 자료는 ‘한국학 중앙연구원’에서 복관된 것을 저본으로 하였으며 결락된 부분은 김순전 외 6인이 발행한 『조선총독부초등학교수신서 상, 하』를 참고하였다. 표기방법은 <(기수)-(권수=학년)-(과)>의 순서로 하였다. 조선총독부발행 『보통학교수신서』는 K로, 일본문부성발행 『심상소학수신서』는 J로 표기하였다. 조선총독부 『보통학교수신서』 3기 2학년 1과인 경우 <KIII-(2)-1>로, 일본문부성 『심상소학수신서』는 3기 2학년 1과인 경우 <JIII-(2)-1>로 표기하였다.

량이직하다”고 정의하면서 “충량이직(忠良易直)은 충성스레(忠), 양순하게(良), 쉽게(易), 곧고 바르게(直)로 이야말로 동포의 습성이다”고 해석하고 있다.<sup>9)</sup> 그리고 하가 야이치(芳賀矢一)는 ‘국민성 십론’에서 일본국민의 열 가지 덕목 중 ‘충군애국’을 첫 번째 덕목으로 들고 있다.<sup>10)</sup> 또 니시 아마네가 기초한 「군인칙유」의 다섯 가지 덕목은 충절, 예의, 무용, 신의, 검소로 그 중에서 충절에서 “군인은 충절을 다하는 것을 본분으로 해야 할 것이다. 스스로 본분인 충절을 지키고 義는 산보다 무겁고 죽음은 기러기 털보다 가볍게 할 각오를 해라”<sup>11)</sup> 라고 군인에게 충의를 위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희생정신을 강요하고 있다. 또한 1937년 문부성이 발행하여 일본과 조선에 배포한 「국체의 본의」에서 ‘충’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충은 천황을 중심으로 천황에 절대 순종하는 길이다. 절대 순종은 나를 버리고 나를 없애고 오직 천황에 봉사하는 것이다. 이 충의 길을 행하는 것이 우리 국민의 유일하게 살아있는 길이고 모든 힘의 근원이다. 천황을 위해서 신명을 바치는 것은 소위 자기희생이 아니고, 소아를 버려서 위대한 천황의 위광으로 살고, 국민으로서의 참 생명을 발휘하는 까닭이다.<sup>12)</sup>

이와 같이 아동들에게 자기 자신을 버리고 천황을 위해서 절대 순종하고 목숨을 바침으로써 천황의 은혜를 갚는 것이며,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충’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반면, 중국 고전인 <논어>에서는 ‘충’이란 “다른 사람을 위해 일을 피하는 것이 ‘충’이지 않은가.”라는 말처럼 충은 특정한 대상이 아닌 일반인들을 위한 사회도덕으로 널리 쓰였고, 송의 왕응린이 “군주가 백성을 대하는 것 역시 ‘충’이다. 성현께서 충을 말씀하실 때 군주를 섬기는 것만 말하지 않았다”라고 <困學紀聞 六>에서 강조하고 있듯이, 결코 신하의 군주에 대한 일방적인 충성만을 의미하지 않았다.<sup>13)</sup>

한국에서의 ‘충’이란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쳐 ‘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보았다. 즉 “자신을 하나로 하는 것은 ‘충’의 시작이요, 집안의 마음을 하나로

9) 미나미 히로시(南博) 이관기 역(1999) 『일본인론(상)』, 소화, p.39 재인용.

10) 1. 충군애국 2. 조상을 숭배하고 가명을 중히 여긴다. 3. 현세적이고 실제적 4. 초목을 사랑하고 자연을 즐긴다. 5. 낙천적이고 시원스런 마음 6. 담백하고 티 없이 맑음 7. 섬세하고 하려하며 꿈하고 정교함 8. 청정하고 결백함 9. 예의범절 10. 온화하고 관대함 芳賀矢一(1938), 『國民性十論』, 富山房版, p.1.

11) 由井正臣·藤原彰·吉田裕(1989) 『軍隊 兵士』, 岩波書局, p.174 재인용.

12) 文部省編纂(1937) 『國體の本義』, 內閣印刷局, pp.34~35. 이 글은 필자의 초역임.

13) 마루야마 마사오(丸山眞男) 저 박충석·김석근 공역(1998) 『충성과 반역』, 나남출판사, pp.26~27.

하는 것은 충의 중간단계이고, 나라를 위하여 마음을 하나로 모을 때 ‘충’의 마지막 단계이다.”<sup>14)</sup> 라고 했다. 국민은 천황에게 받은 은혜를 갚기 위해 일방적으로 충성해야한다는 것을 강조한 일본의 ‘충’과는 다른 의미로, 군주보다는 나라를 먼저 걱정하는 이순신, 광재우 등의 애국심에 따른 자발적인 ‘충’이었다.

이와 같이 한일간의 ‘충’의 개념 차이가 처음으로 나타난 것은 통감부시대의 수신교과서 부터이다. 학부로부터 불인가 처분을 받은 교과서의 5가지 중요 요인을 살펴보면 ① 애국심고취 ② 국가론과 의무론 ③ 자주·독립정신 고취 ④ 배일사상 고취 ⑤ 한국의 고유한 언어·풍습·습관 유지 등이었다. 따라서 신해영 저(1908) 『윤리학 교과서 권4』에서는 ‘충군애국’이 어떻게 기술되어있는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충군과 애국은 그 이름은 서로 다르나 그 실체는 동일한바 대게 진정한 애국심이라도 이를 집중하는 極點이 없으면 산만하고 기강이 없어 효과가 적을 지니... 황실이 一國 활동의 중심이 되나니 국가 사랑하는 자 반드시 황실에 대하여 충성을 가하나라<sup>15)</sup>

즉, 애국심의 중심은 황실을 정점으로 하고 충군과 애국은 같은 의미이므로 국민이 하나로 뭉칠 것을 호소하고 있다. 따라서 일제는 자신의 목숨을 바쳐 천황에 충성을 다하는 신민의 모습이 대한제국에서는 조선왕에 대한 충성으로 바뀌어져 애국계몽운동으로 확산될 것을 크게 염려하였다. 실제로 1907년 8월 조선군이 해산되자 그 병사들 대부분은 의병활동에 합류하거나 일부는 사립학교의 체육교사가 되어 생도들을 독립투사로 기르기 위해서 스파르타식 체조와 교련이 성행하였다.<sup>16)</sup> 이처럼 무력을 통한 저항운동 뿐 만 아니고 교육을 통해서 나라를 구하려는 애국심 고취 운동도 함께 전개하였다. 이와 같은 저항운동의 구심점은 황실을 중심으로 한 ‘충군애국’교육이었다.

또, 나라가 빼앗길 위기에 처해있는 것을 인식한 많은 선각자들은 학교 교육 뿐만 아니고 신문이나 신소설로써 국민에게 호소하기도 하였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장지연의 신소설 『애국부인전』(1907), 신채호의 『을지문덕전』(1908) 등이 있다. 장지연은 1905년 11월 ‘시일야방성대곡’이라는 논설을 <황성신보>에 발표하여 많은 국민을 발분시켰다. 프랑스의 영웅 잔 다르크의 일생을 그린 『애국부인전』은 시공간적으로 대한제국과는 거리가 있으나, 강압적인 외세에 대한 저항의식이 현 상황과 맞아 떨어져 애국계몽운동의 본보기가 되었다. 『애국

14) 김철운(2000) 『충·효·예와 인격』, 교육출판사, p.112.

15) 주2)와 같은 책, p.71 재인용.

16) 강제연(1980) 『朝鮮의開化思想』, 岩波書店, p.366.

부인전』의 마지막 부분에서 대한제국도 약안(잔 다르크)과 같은 훌륭한 영웅과 애국자가 없음을 탄식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다.

일제의 강점 이후 1911년의 ‘제1차 조선교육령’이 나오기 전까지는 ‘충량한 국민양성’이 아닌 ‘순량한 국민양성’으로 해야 한다는 교화의견서<sup>17)</sup>까지 조선총독부에 제출 될 정도로 ‘충’에 대한 일제의 과잉반응은 극에 달했다. 조선총독부는 이 두 가지 의견을 검토한 끝에 결국 ‘충량한 국민양성’으로 정하여 조선교육의 근본이념으로 확정했다. 그러나 ‘제1차 조선교육령’의 취지에 따라 편찬된 『보통학교수신서』 제 I 기와 ‘제2차 조선교육령’에 따라 편찬된 『보통학교수신서』 제 II 기에서 ‘忠’이란 제목은 <K1-(4)-4> 「요시히사친왕(충성)」에 꼭 한번 기술되어 있다. 또한 일제는 강점 이후 당분간 사용된 학부 출판 <K학부-(4)-1>의 「독립자영」이란 제목을 「자활」로 바꿔서 정정 출판하여 사용하였다. 그리고 조선인에게 애국심을 고취시킬 가능성이 있는 문구인 ‘충’ ‘독립’ 등의 단어는 철저히 삭제시켰다.

일제의 ‘충’의 대한 염려는 아이러니컬하게 이노우에 데즈지로(井上哲次郎)가 편찬한 「중학수신교과서」 5권(1902년 초판, 1909년 5판 발행, 金港堂)과 이노우에 데즈지로와 다카야마 린지로(高山林次郎)가 공동 저술한 「신편윤리교과서」 3권(1897년 초판, 1898년 재판, 金港堂)과 학부의 학정 참여관으로 학부의 교과서 편찬을 주도한 미즈지 주조(三土忠造)의 「재정중등국문전」 3권(1898년 초판, 1906년 신정, 富山房)이 학부로부터 불인가 교과용도서로 처분<sup>18)</sup>을 받았다는 점이다. <교육칙어>의 취지와 정신에 충실하게 기술된 교과서가 일본 문부성과는 정반대로 학부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당시 일제(학부)가 ‘충’이라는 단어와 의미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했는가를 알 수 있는 징표이다.

### 3. 다양한 인물을 통한 충군애국 교육

『보통학교수신서』에서는 천황에게 충성하고 목숨을 바쳤던 인물이나 전쟁 영웅들의 기술을 통해 아동들에게 충군애국의 정신을 고취시키고 천황에 충성

17) 주15)와 같은 책, p.357 일제강점 후 조선총독부 서기관 및 학무과장을 지낸 구마모토(隈本繁吉)는 1910년 9월 3일 조선총독부의 교육방침에 대한 ‘참고의견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조선민족의 동화는 그들을 일본민족의 언어·풍습·습관 등을 채용 모방시켜 장차 그들을 일본민족의 충군애국정신(충의심)을 터득시키는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단순히 언어·풍습·습관 등의 외적인 방면만을 채용한다고 결코 동화되었다고 말할 수 없고 동화의 본질은 내적 방면인 정신에 있다.”

18) 조선총독부(1912), 『교과용 도서일람』 p40~41.

을 다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 이와 같은 인물들이 시대적·신분적으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심상소학수신서』와 비교 고찰해보고자 한다.

### 3.1 <수신서>에 등장한 ‘忠’의 인물

<표 1> 『보통학교수신서』, 『심상소학수신서』에서 ‘충’과 관계된 등장인물<sup>19)</sup>

인물(시대)	J수신 K수신	I기(1904)	II기(1910)	III기(1918)	IV기(1934)	V기(1941)
		I기(1913)	II기(1923)	III기(1930)	IV기(1939)	V기(1942)
기쿠치 고헤이 (?~1895)	청일	(2)-24(충의)	(1)-17(충의)	(3)-17(충의)	(3)-26(충의)	(1)-23(충의)
요시히사 친왕 (1847~1895)	청일 전쟁	(5)-2 (4)-4(충성) (4)-7	(4)-2	(4)-2	(4)-2  (4)-15	(4)-4  (4)-4
구스노키 마사시게 (父)(1294~1336)	남북 조	(4)-4(父)	(5)-4(父)	(5)-2(충의)(父)	(6)-3(충)(父)	(3)-14(父)
마사즈라(子) (1326~1348)		(4)-5(子)	(6)-7(子)	(6)-5(신명을 바쳐)  (5)-14(충효)  (5)-19(교육적어)	(6)-3(효)(子)  (5)-14(충효는 하나)  (5)-19(교육적어)	
도요토미 히데요시 (1537~1598)	임진 왜란	(5)-3, 4, 5, 6	(4)-5, 5, 6	(4)-4 (4)-5	(4)-22  (5)-17	
요시다 쇼인 (1830~1859)	에도	(3)-22	(3)-20	(5)-17	(5)-22(충군애국)	(6)-4
다니무라 게이스케 (1853~1877)	서남 전쟁	(3)-2 (충의)	(4)-3 (충군애국)	(3)-2 (충군애국)		
사쿠마 츠토무 (1879~1910)	메이 지		(6)-9	(6)-8	(6)-11	(5)-2  (5)-2
히로세 다케오 (1868~1904)	러일 전쟁			(2)-16(충의) (2)-17(약속을 지켜 라)  (5)-9(信義)	(2)-23(충의)  (5)-9(信義)	
노기 마레스케 육군대장 (1849~1912)	러일 전쟁			(6)-15(청렴)	(6)-20(지성)	(4)-17(노기대장 의 소년시절)
고바야시 다마키 고고 산시로	러일 전쟁				(2)-23(충의) (3)-19(공덕) (4)-6(제멋대로 하지 마라)	(4)-18(노기대장 의 소년시절)
노무라 해군중장 우에다 육군중장	상해 사변				(3)-22(충군애국)  (3)-23(충군애국)	
야마우치 다츠오	중일 전쟁				(6)-17  (6)-22(국방)	(6)-19
도고 헤이하치로 (1847~1934)	중일 전쟁				(5)-20(황대신궁)	(5)-8  (5)-4
이이누마 비행사 (1912~1941)	태평 양					(5)-18  (5)-20
니시즈미 대위	중일					

	전쟁					(3)-19
이와사 해군대위 (?~1941)	태평					(5)-15
	양					(4)-15
가토 다테오 소장 (?~1942)	태평					(5)-9
	양					(5)-9
다치바나 슈타 육군중령 (1865~1904)	러일					(5)-9
	전쟁					(5)-9
야마모토 이소로쿠 원수(1884~1943)	태평					
	양					(5)-17

위의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임진왜란과 관계있는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 청일전쟁의 군신으로 칭송된 나팔수 병사 기쿠치 고헤이(木口小平), 서남전쟁의 영웅인 다니무라 게이스케(谷村計介), 충효의 모범인물인 요시다 쇼인(吉田松陰)등은 『심상소학수신서』와 달리 『보통학교수신서』에는 거의 등장하고 있지 않다. 또한 『보통학교수신서』에서는 노기 마레스케(乃木希典)와 러일전쟁에서 해군의 군신으로 알려진 히로세 다케오(広瀬武夫)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중일과 태평양전쟁에서 전사한 군인들을 IV·V기에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있다. 일제가 I기부터 III기까지는 ‘충’에 관련한 인물을 신지 않은 배경에는 통감부시대 조선인의 강력한 민족저항운동에 놀란 나머지 의도적으로 배제하였다. 『보통학교수신서』에서 ‘충’과 관련된 전체 등장인물 29명(중복)의 변화를 각 기수로 살펴보면 I기 3%(1명), II기 0%(0명), III기 14%(4명), IV기 45%(13명), V기 38%(11명)로 IV기부터 급증하고 있다. 반면 『심상소학수신서』에 등장한 ‘충’에 관한 인물은 전체인물 46명(중복)중 I기 15%(7명), II기 17%(8명), III기 22%(10명), IV기 22%(10명), V기 24%(11명) I기부터 V기까지 시기별 완만하게 점증적으로 배치되어있다.

### 3.2 무사와 황족의 충군애국

『헤이케모노가타리(平家物語)』에는 다이라노 시게모리(平重盛)가 아버지인 다이라노 기요모리(平清盛)에게 간언할 때 “천황에게 충성하면 ‘효’에 반하고, 아버지에게 효도하면 ‘충’에 반한다.”고 한탄하였다. 이처럼 ‘충’과 ‘효’가 서로

19) <표 1>은 조선총독부발행 『보통학교수신서』와 일본문부성발행 『심상소학수신서』에서 충이라는 제목과 충에 관계된 인물의 등장횟수를 각 기수별로 나타낸 것이다. 보통학교의 편찬 기수분류는 조선총독부 편수과에 근무한 오즈키 요시히로(大槻芳弘)가 ‘교과서 편찬사업의 변천’ 『문교의 조선』 (1944년 3월호, p.29~35)에서 분류한 기수를 참고하였다. 일본 『심상소학수신서』는 문부성에서 5기로 나누워 편찬하였다. K는 『보통학교수신서』를 나타내고 J는 『심상소학수신서』를 나타낸다.

상충할 때 ‘효’보다는 ‘충’을 선택하는 것이 일본의 무사도였다. 전국시대에는 주군을 배반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에도시대에는 무사의 주종관계에 입각한 전국적인 통치조직이 확립되어 이전보다 ‘충’이 강조되었다. 막말이 되자 ‘충’과 ‘효’를 통합사상인 미토(水戸)학의 이론적 지도자인 후지타 도코(藤田東湖)는 ‘忠孝一本’으로 요시다 쇼인은 ‘忠孝一体’라는 슬로건을 내세웠다.<sup>20)</sup>

메이지정부는 부국강병책으로 군사력 증대에 필요한 정신적인 측면을 강화할 목적으로 무사도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였다. 에도시대 무사의 충성이 장군과 다이묘(大名)로 향한 이중구조를 메이지천황에 대한 충성심으로 일원화하여 애국사상으로 결합시킬 목적이었다. 따라서 『심상소학수신서』에서는 고다이고천황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남조의 충신 구스노키 마사시게(楠木正成)와 그 아들 마사츠라(正行)를 매기 마다 함께 등장시켜, 천황에 대한 충성심이 중세부터 이루어 졌다는 역사성을 아동들에게 인식시키고 있다.

반면 『보통학교수신서』에서 구스노키 마사시게(楠木正成) 부자는 I·II기에 나오지 않다가 III·IV기에 「충효」, 「충효는 하나」라는 제목으로 등장한다. 초점도 아들인 마사츠라에 맞추어져 ‘충효’란 ‘충’을 통해 ‘효’가 이루어진다고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모의 바람이 항상 충의에 있기 때문에 군주에 대한 충의를 다하면 이것이 바로 효행이 됩니다. <KIII-(5)-14> 「충효」

마사츠라처럼 ‘충효’란 각각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소원한 천황에 대한 충성을 이어받아, 천황을 위해서 충성을 다함으로써 효를 실천한 바람직한 인물로 서술하고 있다. 반면 조선에서는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아버지의 부고를 듣자, 여진족과 국경선에서 부대를 지휘한 최전선 부대장의 직책을 즉시 그만두고 바로 고향으로 내려와 3년 동안 아버지의 묘소에서 지낸 경우가 있다. 이것은 ‘충’보다는 ‘효’가 우선이라는 우리의 전통사상으로, 부모에게 불효한 사람은 나라에도 충성하지 못한다는 것을 나타낸 예이다. 그러나 일제는 아동들에게 “효보다는 ‘충’이 앞서고, ‘충’이란 천황에게 멸사봉공하는 것이다.”고 굴절된 형태로 교육시켰다.

또한 『심상소학수신서』에서는 「요시히사(能久親王)」이 매 기수마다 나오며 황족도 천황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모습을 거울삼아, 신민들도 이처럼 천황에게 충성을 다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sup>21)</sup> 『보통학교수신서』에서는 I기에 등

20) 石毛直道(2003), 『サムライニッポン文と武の東洋史』, 中央公論新社, pp.102~103.  
21) 시모나카 히로(下中弘)(1995) 『日本史大事典 第2巻』, 平凡社, p.1129 참조. 明治天皇은 황화족의 군인지망을 추진하였다. 1873년 太政官에서 통고된 황화족의 장교 양성기관에 입교가 본격화 되었

장하는 충신의 유일한 인물인 <KI-(4)-4> 「요시히사친왕(충성)」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친왕은 황족의 신분이면서도 대만처럼 기후도 좋지 않고 불편한 곳에 납시어 천황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여 전력투구하시고, 마침내 목숨까지 잃으시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충군애국의 마음이 깊으신 분이셨습니다. 친왕은 지금 대만의 수도 타이베이(台北)에 있는 타이완신사(台灣神社)에 받들어 모셔져 있습니다. <KI-(4)-4> 「요시히사친왕(충성)」

요시히사친왕의 초상화 사진과 타이완신사의 삽화가 함께 실려 천황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자는 이처럼 신사(神社)에 모셔진다는 것을 아동들에게 각인시키고 있다. 또한 전술한바와 같이 일제가 ‘충’에 대한 우려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요시히사친왕의 충성을 기술한 것은 대만과 같은 식민지의 동질성을 아동들에게 교육시키기 위한 의도로 파악된다. 그러나 『심상소학수신서』에는 타이완신사가 그려져 있는 삽화는 일절 나오지 않고, 신사에 모셔졌다는 기술 또한 전혀 없는 점을 볼 때, 요시히사친왕의 기술 내용은 『보통학교수신서』가 『심상소학수신서』보다 훨씬 강조되어 있다.

### 3.3 군신의 충군애국

기쿠치 고헤이(木口小平)는 청일전쟁 중 성환전투의 ‘안성나루터’에서 전사한 육군졸병으로, 죽어서도 나팔을 입에서 떼지 않았다는 군국미담의 주인공이다. 『심상소학수신서』에는 ‘충의’의 대명사로 I기부터 IV기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으나, 『보통학교수신서』에서는 <IV-(1)-23>에 한번 나와 있다. 또, 西南전쟁의 영웅인 다니무라 게이스케(谷村計介)는 『심상소학수신서』에서 I기부터 III기까지 ‘충의’, ‘충군애국’으로 3회 계속 등장하나 『보통학교수신서』에서는 전혀 기술되어 있지 않다.

반면에 노기(乃木)대장은 『보통학교수신서』와 『심상소학수신서』에서 동일하게 III기부터 V기까지 계속 나오고 있다. 그러나 기술의 내용에서는 IV기의 경우 『보통학교수신서』가 2·3·4학년 연속해서 노기대장의 메이지천황에 대한 충성과 희생정신을 기술하고 있으나, 『심상소학수신서』에서는 1개과로 『보통학교수신서』가 『심상소학수신서』보다 ‘충군애국’을 다음과 같이 훨씬 강조하고 있다.

다. 1884년에는 황화족의 본과 입교전의 예비교육을 위해서 육군사관학교에 부속으로 예과를 설치하였고, 1915년 중앙유년학교에 황족기숙사를 설치하여, 제2차 세계대전까지 황화족의 입교는 계속되었다.

대장의 충의로운 마음은 오래도록 변하지 않았습니다. 노기신사는 대장을 모신 신사로 참배하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KIV-(2)-23> 「충의」

해군의 군신인 히로세 다케오(広瀬武夫)는 『보통학교수신서』 2회, 『심상소학수신서』 3회로 거의 비슷하게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히로세 다케오는 러일전쟁 때, 여순(旅順)항구를 폐쇄하려다 명예롭게 전사한 충성스럽고 용맹한 군인입니다. <KIII-(5)-9> 「신의」

이와 같이 러일전쟁의 여순 폐쇄작전에서 부하의 생사를 걱정하면서 빗발치는 탄알 속에 전사한 히로세 중령이야말로 러일전쟁의 서전을 장식한 용감한 해군의 군신으로 떠받들고 있습니다. 또한 육군에서도 러일전쟁의 최대 격전지인 요양(遼陽)전투에서 전사한 다치바나 슈타(橋周太) 중령을 군신으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오늘은 황태자 전하께서 태어나신 날이다. 경사스러운 이 날에 이 한 몸을 천황폐하와 나라에 바치는 것은 진정한 군인의 바램이다. <KV-(5)-9> 「군신의 모습」

천황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다치바나 중령은 육군의 군신으로 치켜세우며 피식민자인 조선의 아동들에게까지 일제는 수신교과서를 통하여 천황과 나라를 위해 목숨을 기꺼이 바칠 것과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 3.4 내선일체를 통한 충군애국

앞의 <표 1>에서 본바와 같이 『보통학교수신서』 I 기에서 III기까지 「충의」와 「충군애국」이 빠진 이유에 대해서 “조선 아동에게 ‘충군애국’을 정면에서 역설하는 것은 ‘충군애국’을 강요하는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정면에서 ‘충군애국’을 내세우지 않는 설명법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서 뺐던 것이다.”<sup>22)</sup> 이처럼 일제는 중일전쟁 이전까지는 ‘충군애국’이란 단어를 가능한 사용하지 않으려고 했고, 사용하더라도 직접적인 인물을 내세우려 하지 않았다는 것은 위의 증언으로 알 수 있다. 이는 조선인의 일제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과 조국의 독립운동으로 발전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직접적인 표현을 피하고자 하

22) 長根禪提.(1926) 「보통학교 교과서 개정에 대해서」 『대동시보사설 제695호』

는 의도가 숨어있다.

일제는 강점기부터 조선인과 일본인아동을 분리하여 교육시킴으로서 겉으로는 내선융화를 부르짖으며 내적으로는 철저히 일본인과 차별교육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수신교과서에서 조선인과 일본인이 함께 등장한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IV기에는 조선인·일본인을 함께 등장시켜 내선일체를 실현한 모범인물로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있다.

장례식에는 도지사를 비롯하여 여기저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두 용사의 영령을 애도했습니다. 이 사실이 천황과 황후 두 폐하께 까지 알려져, 황송하게도 장례비용까지 내려주시고, 도쿄의 야스쿠니신사에 모셔졌습니다. 천황의 은혜를 받고 유족들은 고마움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KIV-(4)-3> 「초혼제」

1933년 9월 17일 경원군 승강주재소 경찰관인 김우선(金羽銑)과 일본인 모리타 마사지(森田政治)는 두만강 부근의 나루터에서 순찰 중 비적에게 불의의 총을 맞고 전사했다. 천황과 황후가 이 두 용사의 용감한 행동을 전해 듣고 장례식에 도지사를 비롯한 많은 사람을 참석하게 하였다. 야스쿠니(靖國)신사의 삽화와 함께 두 사람은 죽어서도 야스쿠니신사에 모셔지는 영광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충량한 황국신민으로서 내선일체의 모범을 보인 두 사람처럼 아동들도 기꺼이 천황과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몸소 실천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 3.5 젊은 군인들의 희생을 통한 충군애국

『보통학교수신서』에서 천황을 위해 목숨을 바쳐 충성을 바친 군인들이 등장하는 과로는 <KV-(3)-19> 「니시즈미(西住)대위」, <KIV-(6)-22> 「국방」의 야마우치 다츠오(山内達雄)대위, <KV-(5)-17> 「야마모토(山本)원수」가 있다. 일제는 중일전쟁 이후 병력과 물자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선의 지원이 필요하고 시급하였다. 특히 인적 자원의 보충을 위해 미래의 군인 자원인 초등학교 아동들의 교육을 통해서 장차 전쟁에 나가 천황에게 멸사봉공하는 군인을 많이 양성해야할 필요성이 절실했다.

이러기 위해서는 아동들에게 군인들의 자상한 모습을 심어주어 아동과 친근함을 나타내기 위해 아동들의 정서에 공감하려는 기술형태를 취하였다. 중일전쟁 중 부상을 입어 죽어가면서도 천황폐하 만세를 외쳤다는 「니시즈미대위」는 어머니의 부상 때문에 혼자 울고 있는 갓난아이에게 우유를 먹여주는 자상한 군인으로 묘사되어있다. 이웃집 아저씨와 같은 자상한 니시즈미 대위가 전장에

서 천황에게 충성을 다하는 모습처럼 조선의 아동들도 이를 본받아 이처럼 행동하기를 유도하고 있다.

V기에 접어들자 중일전쟁이 태평양전쟁으로 확대되자 <KV-(5)-20> 「이이누마(飯沼)비행사」, <KV-(4)-15> 「하와이 해전 아홉 용사」 등 젊고 패기에 찬 장교와 병사들이 천황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치는 것은 자랑스러운 행동이라고 찬미하고 있다.

“바다로 가면 물에 잠긴 시체”라는 노래처럼 천황을 위해 혁혁한 전공을 세우고, 호국의 꽃으로 졌던 것입니다. <KV-(4)-15> 「하와이 해전 아홉 용사」

『만요슈(万葉集)』(18)에 수록된 오토모노 야카모치(大伴家持)의 와카(和歌) “바다에 가면 물에 잠긴 시체, 산에 가면 풀에 무성한 시체, 천황 곁에서 죽을 수 있다면, 이 한 세상 뒤돌아보지 않으리.”를 인용하면서 아홉 병사들의 훌륭한 희생정신은 천황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에서 나오게 된다고 아동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심상소학수신서』에서는 <JV-(5)-15> 「특별공격대」라는 제목으로 내용은 비슷하나,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위의 인용된 문장이 빠져있다. 이와 같은 사실에서 일제는 조선의 아동에게 오히려 강한 희생정신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일제는 이처럼 천황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용감한 군인이 탄생할 수 있는 데는 자식을 전장에 보낸 장한 어머니들이 많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고 선전하였다. 따라서 후방에 있는 부모형제들의 애국심이 절대로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아동들에게 국민의 의무이므로 적극 협력해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천황폐하 만세, 대일본제국만세, 전사한 아들 다츠오를 대신해 어머니 야스가 삼가 노래합니다. “아아 늙으신 어머니! 밝은 달을 바라보면서 울려고 하는가? 꽃향기를 맡으니 괴로워지려고 하네요. 그래서 안돼요! 머리를 들어 비행기를 봐요. 하늘을 날고 있는 저기 저 비행기 다츠오! 어딘가에 살아있기를.....” 나 역시 남자아이 셋을 키우는 어머니로서 씩씩하게 잘 키워서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를 읽은 사람은 누구하나 감동받지 않은 자가 없었습니다. 일본 장병이 어느 날 뜻하지 않게 기꺼이 나라를 지키는 호국신이 되어 황공하게도 천황폐하의 행차까지 함께하는 이면에는 이와 같은 어머니의 나라를 존경하는 마음도 깊이 작용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KIV-(6)-22> 「국방」

다츠오의 어머니 야스처럼 천황과 나라를 위해서 자식을 호국의 신으로 길러낸 훌륭한 어머니가 될 것을 가르치고 있다. 이와 같은 예로는 <KV-(5)-4> 「도고(東郷)원수의 어머니」와 <KV-(6)-19> 「일본의 어머니」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일본의 어머니는 자기 자식을 강하고 바르게 길러서 나라에 바치려고 염원하고 있습니다.(중략) 말레이 앞 바다의 해전에 적의 기함을 뇌격(雷擊)한 용사 중의 한사람은 그 순간 함상(艦上)에서 어머니의 웃는 얼굴을 보고 용감하게 돌진했다고 전해지고, 중경(重慶) 폭격시의 어느 비행사는 날개를 관통 당해 부상을 입으면서도 조상신에게 비는 어머니의 환영(幻影)에 힘을 얻어서, 기지로 생환했다고도 합니다. 이와사(岩佐)중령은(중략) 이것도 모두 강해지라고 가르쳤던 어머니가 주신 것으로, 이윽고 귀신도 울리는 중령 활약의 토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KV-(6)-19> 「일본의 어머니」

위 글은 『심상소학수신서』에는 나와 있지 않고 『보통학교수신서』에만 기술되어 있는 내용이다. 이처럼 『보통학교수신서』가 『심상소학수신서』보다 군인의 희생정신과 어머니의 역할이 강조되어진 배경에는, 『심상소학수신서』의 교과서 편찬은 정부(문부성)의 통치방침과 계획에 따라 일관성 있게 편찬되었다. 그러나 조선총독부의 교과서편찬은 국내외의 상황과 총독부의 통치방침 및 총독의 의도에 따라 ‘조선교육령’을 개정하거나 기타 법령으로 내용을 첨가 삭제하기가 훨씬 용이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IV기부터는 조선의 아동을 총량한 황국신민으로 만들기 위해서 『심상소학수신서』보다 ‘충군애국’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황국신민’이란 용어는 조선에서 일본으로 역수입 되었다.<sup>23)</sup>

### 3.6 천황을 위한 희생이 나라를 위한 희생으로

『보통학교수신서』와 『심상소학수신서』에는 ‘나라(国)를 위해’ ‘천황(君)을 위해 나라(国)를 위해’라는 문구가 많이 나오고 있다. 이때 군(君)이란 천황을 의미하고, 국(国)은 나라 또는 국가와 민족을 의미한다고 볼 때, 천황과 나라 중에서 어느 쪽이 먼저 나오느냐에 따라 일제의 ‘충군애국’ 교육의 강조하는 점과 의도하는 방향을 알 수 있다.

23) 渡部学, 김성환 역(1984) 『한국근대사』, 동녘신서, p.187 재인용.

<표 2> 『보통학교수신서』에서 ‘천황을 위해’ ‘나라를 위해’의 등장 빈도

문구	I기	II기	III기	IV기	V기	횟수
나라를 위해 (国のために)			(6)-19 「 충군애국 의 편지」 (1)	(4)-5「가족」(1) (4)-15「요시히사친왕」(1) (4)-22「남세의무」(1) (4)-24「좋은 일본인」(1) (5)-15「도량」(2) (5)-24「황국신민」(1) (6)-19「충군애국」(1)	(5)-4「도고원수의 어머니」(1) (6)-2「우리가족」(1) (6)-4「산업전사의 편지」(1)	13
君のために 国のために (천황을 위해 나라를 위해)	(4)-4「요시 히사친왕 충 성」(1)		(3)-13 초 혼제」(3)	(4)-3「초혼제」(1) (4)-4「야스쿠니신사」(1) (4)-24 「좋은 일본인」(1)	(4)-3「야스쿠니신사」(3) (4)-4「요시히사친왕」(1) (5)-17「야마모토원수」(1)	12

<표 3> 『심상소학수신서』에서 ‘천황을 위해’ ‘나라를 위해’의 등장 빈도

문구	I기	II기	III기	IV기	V기	횟수
나라를 위해 (国のために)	(4)-20「병 역」(1) (6)-27「국 민의 의무」 (1)	(4)-2 요시 히사친왕」 (1) (4)-4 야스 쿠니신사」 (1)	(4)-2「요시히 사친왕」(1) (5)-17「자신」 (1) (6)-15「청렴」 (1)	(4)-2「요시히사친왕」(1) (3)-27「좋은 일본인」(1) (5)-22「충군애국」(3) (5)-27「좋은 일본인」(1)	(3)-3「일본어린이」(1) (3)-3「일본의 어린이」(1) (3)-4「치이사코베노스가루」 (1) (3)-4「마음을 하나로」(2) (4)-11「야마다 나가마사」(1)	19
국가를 위해 (国家のために)	(5)-2「기타 시라가와 요시히사친 왕」(1)「		(5)-21「도량」 (1)			2
천황을 위해 나라를 위해 (君のために 国のために)			(4)-4「야스쿠 니신사」(3)	(4)-3「야스쿠니신사」(3) (3)-27「좋은 일본인」(1)	(4)-3「야스쿠니신사」(3) (4)-2「요시히사친왕」(1)	11
나라를 위해 천황을 위해 (国のため 君のために)		(4)-4 야스 쿠니신사」 (1)				1

『보통학교수신서』에서 ‘나라를 위해’ 라는 문구에는 주로 납세, 가족, 국가 등 국민의 의무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천황을 위해 나라를 위해’에는 「야스쿠니신사」, 「좋은 일본인」등에 많이 나오고 있다. 특히 『야스쿠니신사』는 거의 대부분 ‘천황을 위해 나라를 위해’로 되어있으나 예외적으로 <J II-(4)-4> 『야스쿠니신사』에서는 ‘나라를 위해 천황을 위해’라는 문구가 처음으로 나오고 있다. 비교적 연대가 비슷한 시기에 출판된 <K I-(4)-4> 『요시히사친왕』에서는 ‘천황을 위해 나라를 위해’라는 문구가 처음으로 나온 후 III기부터 V기까지 계속 나오고 있다. ‘천황을 위해 나라를 위해’의 등장 횟수는 『보통학교수신서』가 12회로 『심상소학수신서』의 11회보다 많았고, 과수에서도 『보통학교수신서』가 8개과로 『심상소학수신서』에는 5개보다 많았다. 또한 「요시히사친왕」의

경우 『심상소학수신서』에서는 ‘천황을 위해 나라를 위해’가 1회, ‘나라를 위해’가 3회이었으나 『보통학교수신서』에서는 ‘천황을 위해 나라를 위해’가 2회로 ‘나라를 위해’의 1회보다 많았다. 이는 일제가 식민지 아동에게까지 천황에게 충성을 다하는 충량한 황국신민으로 양성해서 장차 황국의 군인으로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교육시켰다는 것을 잘 나타내 준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표 4> IV期 『보통학교수신서』와 『심상소학수신서』의 目次 비교

1학년	K	23(충의) 24(착한어린이)
	J	26(충의) 27(착한어린이)
2학년	K	22(기원절) 23(충의) 24(착한어린이)
	J	22(기원절) 23(충의) 24(약속을 지켜라) 25(정직) 26(은혜를 잊지 마라) 27(착한어린이)
3학년	K	20(공덕) 21(협동) 22(은혜를 잊지 마라) 23(충군애국) 24(좋은 일본인)
	J	22(충군애국) 23(협동) 24(이웃사람) 25(공의) 26(황후폐하) 27(좋은 일본인)
4학년	K	1(축일·대제일) 2(국가) 3(초혼제) 4(야스쿠니신사)
	J	1(메이지천황) 2(요시히사친왕) 3(야스쿠니 신사)
5학년	K	19(충효는 하나) 20(황대신궁) 21(우리국체) 22(교육칙어1) 23교육칙어(2) 24(황국신민)
	J	21(황후폐하) 22(충군애국) 23(형제) 24(부모) 25(효행) 26(덕행) 27(좋은 일본인)
6학년	K	17(황실과 신민1) 18(황실과 신민2) 19(충군애국) 20(남자의무와 여자의무) 21(국헌국법) 22(국방) 23(국교) 24(황국신민의 각오)
	J	1(황대신궁) 2(황실) 3(충) 4(효) 25(교육) 26(교육칙어) 27(교육칙어계속) 28(교육칙어계속)

또한 과의 제목인 목차의 배열순서는 수신서 전체의 내용을 함축해서 발신하는 키워드로 어떤 목적으로 교과서를 편찬했는가를 아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즉 목차의 순서가 의미하는 장면이 영화나 만화의 한 장면처럼 연속적으로 이어질 때 동영상이 되며 비로소 영화와 같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발행연도가 가장 비슷한 시기인 IV기 『심상소학수신서』와 『보통학교수신서』의 목차 비교를 통해 조선인 아동들에게 어떠한 목적과 의도로 교육시켰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2학년의 경우 『보통학교수신서』에서는 마지막 부분을 「기원절, 「충의, 「착한 어린이」로 끝맺고 있다. 반면 『심상소학수신서』에서는 「기원절, 「충의」 다음에 개인의 일반 덕목인 「약속을 지켜라, 「정직, 「은혜를 잊지 마라」가 중간에 삽입된 후 마지막과에 똑같이 「착한 어린이」로 마무리 되어 있다.

3학년의 경우 『보통학교수신서』에서는 「충군애국」과 「좋은 일본인」이 연속되어 있으나 『심상소학수신서』에서는 「황후폐하」와 「좋은 일본인」으로 연결되어 있다.

4학년의 『심상소학수신서』에서는 「메이지천황, 「요시히사친왕, 「야스쿠니신사」라는 순서로 기술되어 있다. 이는 메이지천황의 뒤를 이어 황족인 요시히사친왕의 충군애국 정신을 본받아, 신민도 야스쿠니신사에 모셔지는 영광을 얻

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보통학교수신서』에서는 내선일체의 본보기로 조선인과 일본인이 천황을 위해 목숨을 바쳐서 야스쿠니신사에 모셔지게 된다는 것을 아동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초혼제」 「야스쿠니신사」가 연속되어 나오고 있다. 이처럼 『보통학교수신서』에서는 좀 더 친근감을 주기 위해 황족이 아닌 일반인도 천황을 위해 충성을 다하면 야스쿠니신사에 들어갈 수 있다는 본보기를 나타낸 경우로, 『심상소학수신서』보다 『보통학교수신서』가 훨씬 ‘충’과 ‘희생정신’을 강조하고 있다.

『보통학교수신서』의 5, 6학년에서는 마지막과에 「황국신민」 「황국신민의 각오」로 마무리하여 조선아동들에게 사회에 나와서도 황국신민으로써 책임과 구체적인 사명을 완성할 것을 주지시키고 있다.

#### 4. 학교교육을 통한 충량한 황국군인 양성

1936년 8월 5일 조선총독에 취임한 미나미 지로는 두 가지의 시정목표를 발표했다. 하나는 조선에서 쇼와천황의 행차를 실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징병제도의 실시였다. 그러나 천황의 조선방문은 실현되지 못했으나 징병제도는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일제는 일찍이 중일전쟁이 시작되기 전인 1937년 4월 17일 창씨개명에 주요한 관계법인 ‘조선민사령’의 개정 작업에 착수하였다. 6월에는 일본의 육군성으로부터 ‘조선인의 병역문제’에 관한 의견을 구하고, 7월 2일에는 조선군이 육군성 앞으로 ‘조선인 지원병 제도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였다. 7월 7일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8월 5일 지원병문제에 관해 미나미(南)총독, 오다케(大竹) 내무국장, 미하시(三橋) 경무국장, 시오바라(塩原) 학무국장과 조선군참모 이하라(井原)가 회담하여 지원병제도의 골격이 세워져 1938년 2월 ‘지원병제도’가 공포되었다. 일제는 황국신민의 모델을 만들고 장차 ‘징병제’ 시행을 염두에 두고서 학교교육에 역점을 두었다. 이와 같은 목적아래 ‘제 3차 조선교육령’이 개정되었다. 시오바라(塩原)는 공식 석상에서 ‘병역과 교육’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원병제도로 하는 것이 좋다. 아니면 징병제도로 하는 것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에 관해서는 군대가 알아서 할 것이어서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말할 필요가 없다. 병역이라는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다. 다음은 훌륭한 황국신민인 청년을 양성해서 가능한 많이 채용하면 된다.<sup>24)</sup>

24) 『文教の朝鮮』 1939년 8월호 pp.9-10 참조.

황국신민을 양성하기 위해서 학교교육 특히 보통학교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육군특별지원병제도’를 통해 전기와 후기 각각 400여명을 선발하여 훈련소에 6개월간 입소하여, 전기 수료생은 현역병으로 후기 수료생은 보충병으로 선발하였다. 훈련소에 입소하는 생도들의 학력을 살펴보면 전기에 중학교 졸업이 5명, 중학교 중퇴가 1명, 실업학교 졸업이 36명, 고등소학교 졸업이 20명, 소학교(3차 교육령에 의해서 보통학교에서 소학교로 바뀌짐) 졸업이 140명으로 전체인원의 약 70%에 달하고 있다. 이와 같은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일제가 초등학교부터 황국신민화 교육을 강조한 까닭은 장차 ‘징병제’를 염두해 두고서 천황에 충성한 많은 군인들의 양성이었다. 전기 수료생 중 약 절반은 북중국에서 일반병으로 출전하여 일본병사와 손색없이 무훈을 세웠다. 그 중에서 두 사람의 호국영령이 생겨 ‘내선일체’ 정신구현의 초석이 되었다.<sup>25)</sup> 1942년 5월 8일 각료회의에서 ‘징병제’가 공포되고 1944년 4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 제1회 징병검사가 실시되었다. 지원자 수 206,057명 중에서 갑종 합격 33.5%, 제1 을종 30%, 제2 을종 16%, 제3 을종 11.1%였다.<sup>26)</sup>

1941년 1월 8일 도조 히데키(東条英機) 육군대신이 전체 육군에게 내린 「戰陣訓」<sup>27)</sup>에서 “살아서 포로가 되는 수치를 당하지 말고, 죽어서 수치스런 오명을 남기지 말라”고 포로보다는 죽음을 통한 군인의 명예를 강조하고 강요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7월 21일에 문부성 교학국에서 간행된 「신민의 길」에서 ‘천황에 귀일’과 ‘멸사봉공’에 의한 국가의 봉사를 국민들에게 요구했다.

이러한 일본의 희생정신이 조선에서 ‘육군특별지원병제도’ ‘징병제’로 이어지고 가장 많이 지원한 보통학교출신이 배운 『보통학교수신서』에서 황국신민화 교육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일본인으로 태어나 야스쿠니신사에 모셔지는 것은 더 이상 없는 명예스런 일입니다. 조선에도 내지(内地, 일본)와 같이 호국신사(護国神社)<sup>28)</sup>가 세워져, 전사한 사람들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KV-(4)-3> 「靖国神社」

특히 V기에 접어들어 태평양전쟁으로 확산됨에 따라 国民学校 체제로 바뀌어진 『초등수신』에는 태평양전쟁에 참전하여 천황을 위해 목숨을 바친 많은

25) 朝鮮總督府(1941) 『朝鮮總督府施政年報 昭和14年度』, 朝鮮印刷株式會社, pp.189-190 참조.

26) 宮田節子(1985) 『朝鮮民衆と「皇民化」政策』, 未來社, p.57.

27) 生きて虜囚の辱めを受けず、死して罪禍の汚名を残すこと勿れ。「戰陣訓」, p.12.

28) 쇼콘사(招魂社)라고도 한다. 메이지유신 전후부터 국가를 위해 순직한 사람의 영령을 모시는 신사이며, 1868년 각지의 쇼콘조(招魂場)를 개칭한 것이다. 도쿄의 쇼콘사는 1879년 야스쿠니신사(靖国神社)로 개칭되고, 지방의 쇼콘사는 1939년 호국신사(護国神社)로 개칭되었다. 조선의 호국신사로 대표적인 것은 당시 경성(서울)의 남산에 있었던 조선신궁(朝鮮神宮)이다.

병사들을 등장시키고 있다. 또 야스쿠니에 모셔지는 것은 영원히 죽은 것이 아니고 진정한 군인으로서의 명예이다. 조선아동에게도 장차 이런 마음가짐으로 자라서 천황을 위해 목숨을 바친 훌륭한 군인이 될 것을 강요하고 있다. 또한 아래와 같이 아동들이 군인들에게 위문편지를 쓰고, 신사에 참배하고, 체력을 기르기 위해 칼 놀이 연습을 하자고 의견을 세우고 적극 실천하는 모습은 『심상소학교수신서』에는 나와 있지 않고 『보통학교수신서』에만 기술되어 있다.

① 다음 회의까지 위문편지를 써 옵시다. ② 매일 돌아가며 신사참배하고, 군인아저씨의 무운장구(武運長久)를 기도합시다. ③ 옷차림을 단정히 하고, 손수건과 휴지 등을 잊지 않도록 합시다. (중략) 학급회의가 끝나고 운동장에 나오자, 6학년생들이 총검술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KV-(4)-9> 「학급회의」

이윽고 뉴스가 시작되었습니다. 또 일본공군의 용사가 적 비행기를 많이 해치웠다는 것입니다. 나는 무심결에 “만세.”하고 외쳤습니다. “역시 일본은 강하구나!” 라고 말했더니, “그렇고말고, 일본 공군의 용사는 세계 제일이니까.”라고 형이 뽐내며 말했습니다. <KV-(3)-10> 「가을밤의 라디오」

이처럼 일제는 식민지 아동들에게 태평양전쟁의 상황을 생생하게 가르쳐 주고 일본 군인의 용감함을 선전하였다. 또한 이러한 군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일제는 아동들에게 위문편지를 쓰거나 신사에 참배하여 군인들의 무사하기를 빌게 하였다. 아동들이 직접 전쟁에 참여하지는 못했어도 후방에 남아있는 충량한 황국신민으로써 전쟁에 참여한 군인 못지않은 마음자세와 임무를 가르치고 있다. 일제는 식민지 조선의 아동을 미래의 군인으로 양성하여 장차 전쟁에 참여시켜 천황과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충량한 황국신민으로 만들고자 하였다.

## 5. 결론

이상과 같이 『보통학교수신서』에서 충군애국과 관계된 등장하는 인물들의 기술사항을 살펴본 결과, 일제는 식민지 초기부터 ‘제1차 조선교육령’의 취지에 따라 충량한 국민을 육성하는데 교육목표를 두고 있었다. 그러나 조선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온 ‘충’의 의미가 아동들에게 임금에 대한 충성으로 인식시킬 우려 하에, ‘제3차 조선교육령’이 개정되기 이전까지 『보통학교수신서』에서는 ‘충

의’ 또는 ‘충군애국’을 직접적으로 기술하지 않았다. 그러나 중일전쟁 이후 일제는 이제까지의 기술형태와 달리 『심상소학수신서』에서 천황을 위해 목숨을 바친 많은 군인들을 그대로 『보통학교수신서』 IV기, V기에 대거 등장시켜 식민지 아동들에게 충군애국 교육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충군애국’의 모범사례는 주로 조선인이 아닌 일본인이 대부분 이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일제는 예외로 내선일체의 모범상으로 김우선과 일본인 모리타 마사지(森田政治)를 『보통학교수신서』에 등장시켰다. 이는 이 두 사람처럼 조선의 아동들도 기꺼이 천황과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몸소 실천하여 야스쿠니신사에 모셔지는 영광을 얻을 구 있다는 것을 교육시키기 위해서였다. 또한 IV기부터는 매기마다 ‘황국신민서사’를 교과서의 지문에 함께 넣어서 천황을 위해 충성을 다하는 황국신민이 될 것을 ‘아동들에게 강제적이고 반복적으로 인식시켰다.

일제는 식민지 아동들에게 초등학교 때부터 철저하게 천황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희생정신이 바로 나라를 위한 ‘충’이고 ‘효’가 된다고 가르쳤다. 또 『보통학교수신서』에서 배운 충군애국 교육이 장차 ‘육군특별지원병제도’와 ‘징병제’의 시행을 통해 충량한 황국군인 양성을 위한 중요한 초석이 되었다. IV기, V기만을 비교해 볼 때 충군애국 교육은 일본의 아동들보다 오히려 식민지 조선의 아동들에게 일제가 더욱 철저하게 교육시켰음을 본 연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일제가 충량한 국민의 육성을 식민지 통치의 목표로 삼은 데는, 조선의 전통적인 ‘충’의 의미를 일본의 천황에 대한 충성의 의미인 ‘충’으로 대체시켜 조선인을 양순하게 길들여 통치하기 쉽게 하여, 장차 천황에게 충성을 다하는 많은 황국신민을 양성하기 위함이었다고 할 수 있다.

## 【参考文献】

- 学部編纂(1910) 『普通学校修身書』 卷一-四.
- 朝鮮總督府編纂(1913) I 期 『普通学校修身書』 卷一-四.
- \_\_\_\_\_(1922), II 期 『普通学校修身書』 卷一-六.
- \_\_\_\_\_(1928), III 期 『普通学校修身書』 卷一-六.
- \_\_\_\_\_(1938), IV 期 『初等修身書』 卷一-六.
- \_\_\_\_\_(1942), V 期 『ヨイコドモ上下』 『初等修身』 卷一-六.
- 김순전 외6(2005), 『일본초등학교수신서』 제 I 기-V 기.
- 김철운(2000), 『충·효·예와 인격』, 교육출판사, p.112.
- 조남국(1995), 「한국사상의 본질」, 『한국사상과 윤리』, 형설출판사, p.50~56참조
- 마루야마 마사오(丸山真男) 저 박충석·김석근 공역(1998), 『충성과 반역』, 나남출판사, p.26~27.
- 미나미 히로시(南博) 이관기 역(1999) 『일본인론(상)』, 소화, p.39 재인용.
- 渡部学, 김성환 역(1984), 『한국근대사』, 동녘신서, p.187재인용.
- 홍호선(1995) 「대한제국 말기 일제의 교과서 통제 요인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71재인용.
- 大野謙一(1936) 『朝鮮教育問題管見』 朝鮮教育会, p.377~378.
- 石毛直道(2003) 『サムライニッポン文と武の東洋史』, 中央公論新社, p.102~103.
- 河野 仁(2001) 『<玉砕>の軍隊、<生還>の軍隊』, 講談社, p.135.
- 姜在彦(1980) 『朝鮮の開化思想』, 岩波書店, p366.
- 下中弘(1995) 『日本史大事典第2巻』, 平凡社, p.1129.
- 長根禪提.(1926) 「보통학교 교과서 개정에 대해서」 『대동시보사설 제695호』
- 芳賀矢一(1938) 『国民性十論』, 富山房版, p.1
- 宮田節子(1985) 『朝鮮民衆と「皇民化」政策』, 未来社, p.57.
- 文部省編纂(1937) 『国体の本義』, 内閣印刷局, p.34~35.
- 由井正臣·藤原彰·吉田裕(1989), 『軍隊 兵士』, 岩波書店, p.174재인용.

## 要 旨

本稿は、日帝強占期に朝鮮総督府より発行された『普通学校修身書』と日本の文部省により発行された『尋常小学修身書』を具体的に比較検討したものである。また、日帝が『普通学校修身書』のなかで、登場した忠とのかかわりある人物を通じて、どのように児童に教育させたのか、また、どのように変容させおしえたのかを考察したものである。

日帝は統監府時代から強制合併の第三期まで(1938)は、忠の意味が朝鮮の王を指して言うものと判断して忠と関係ある人物を『普通学校修身書』ではあまり登場させなかった。しかし中日戦争以後は積極的に君のために滅私奉公する「忠良な皇国臣民の育成」させる教育の方針に従って、日本の『尋常小学修身書』よりもっと「忠君愛国」を強調させた。また日帝は被植民である朝鮮の児童に「忠君愛国」の精神を養うため、手本となるたくさんの軍人を登場させて、このような犠牲精神を発揮させるのが忠良な皇国臣民になるものだとおしえさせた。

つまり、『普通学校修身書』は朝鮮の児童に「忠君愛国」の思想を注入させるのに重要な役割を演じたことがわかった。また、日帝は児童たちに将来普通学校を卒業したあとでも‘陸軍特別志願兵’や徴兵令’をつうじて忠良な皇国臣民の軍人として養成させようとしたことがわかった。

キーワード：忠、普通学校修身書、忠君愛国、皇国臣民、滅私奉公、徴兵制、軍神

투 고 : 2007. 5. 31  
1차 심사 : 2007. 6. 9  
2차 심사 : 2007. 6. 30

住 所 : (500-757)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300번지 전남대학교 일어일문학과  
電 話 : 062-530-3211, 016-600-0362  
e-mail : sjkim77@chonnam.ac.kr

住 所 : (506-308) 광주광역시 광산구 운남동 주공 아파트 604동 805호  
電 話 : 062-454-1980, 019-609-1980  
e-mail : jhpark1288@hanmail.net